

‘코로나 쇼크’에 임산부 사망 급증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미국의 모성사망률이 급증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에서 임신 중 숨지거나 출산 직후 사망한 여성의 수가 급증하면서 모성사망률이 5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는 이날 2021년 한 해 미국에서 모두 1천205명의 임산부가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0년 사망한 임산부(861명)보다 40.0%나 많은 수다. 2019년에는 모두 754명이 숨지는데 그쳤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성사망률은 2019년 10만명당 20명, 2020년 10만명당 24명을 거쳐 2021년에는 10만명당 33명으로 치솟게 됐다. 이는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종별로는 흑인 임산부의 사망률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흑인 임산부 사망률은 2021년 기준 10만명당 69.9명으로 백인의 2.6배에 이르렀다. 미국의 흑인 인구 비율은 약 14%인데 전체 임산부 사망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이보다 훨씬 크다고 CDC는 지적했다.

백인 중에서는 히스패닉계 임산부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국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임산부의 사망률도 전년도의 갑절 수준이었다.

주된 사인으로는 폐색전증 등 심혈관계 문제와 과다출혈, 고혈압 합병증 등이 꼽혔으나, 2021년 당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한창이었던 것이 임산부 사망 급증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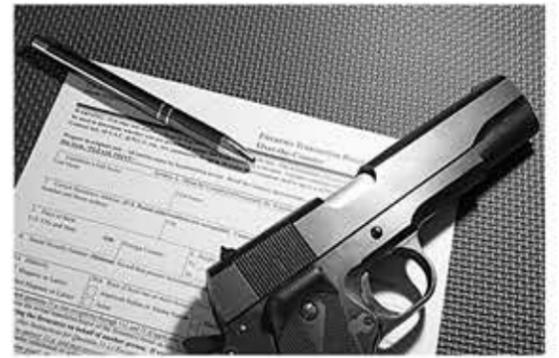
바이든, 총기 폭력 대책 행정명령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일부 주에서 통과된 ‘레드 플래그(red flag)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올해 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파크를 찾아 연설을 통해 “저는 더 많은 생명을, 더 빨리 구하고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 및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미 의회에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모든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 요구 ●총기 안전 보관 요구 ●포괄적인 더 안전한 미국 계획 및 지역사회 폭력 개입 및 예방 전략 확대 등을 포함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명령은 또 현재 19개주와 워싱턴DC에서 시행 중인 ‘레드 플래그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레드 플래그법은 위험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 대책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사진=shutterstock

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2년 동안 추가적인 총기 규제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연간 4만 명 이상이 총기사건으로 숨지고 있다.

미 국방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전력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중국과 러시아에 뒤진 미국이 개발 노력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15일 ‘뉴스1’가 미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내년 국방예산안에는 미국이 조기에 24기의 극초음속미사일 획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극초음속 개발은 상당히 진척돼 있지만 미 국방부는 아직 실전배치하지 않고 있다. 생산 기반이 미비하고 실험 설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 랜드연구소 선임기술자 조지 나쿠지는 미국이 곧 생산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산국(CBO)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9년

부터 80억 달러를 투입해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해 왔으며 개발비 130억 달러와 획득 예산 20억 달러를 추가 요청했다.

미국은 극초음속미사일 요격 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미사일 등은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으나 요격 범위가 좁다.

미국은 1950년대에 이미 극초음속기술을 개발했으며 이후 여러해 동안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이 기술을 적용할 무기체계가 없다며 극초음속 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2019년, 중국은 2020년부터 극초음속활공체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날말퍼즐 정답

1 철	부	2 지			3 장	닭	
밥		4 봉	5 우	유	신		6 허
통			담		7 구	8 정	물
	9 암	각	화			수	
	묵			10 막	걸	리	
11 야	적	12 장		바			13 말
단		14 사	각	지	15 대		뚝
	16 몽	진			17 강	냉	이

1464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

9				8			5
		3	5	7			
	4				9	8	
1	6				7		9
						6	7
5	9		3		1		4
	8	2					4
				5	3	7	
		6	4			3	2